

정서와 사고의 교용 연구

송 문 석*

차 례

- I. 서론
- II. 정서와 사고의 운동
- III. 정서와 사고의 교용 양상
- IV. 교용에 따른 기호화의 특징
- 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정서와 사고의 교용(交融, Interfusion)관계를¹⁾ 고찰함으로써 문학에서 나타나는 직유, 은유, 상징, 병치은유, 반어나 역설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현상들을 해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교용(交融, Interfusion)은 사고와 정서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서로 대립적(對立的)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교통(交通)하고 보완적(補完的)인(not only mutually confronted but connected and complementary)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문학에서 사고와 정서의 문제를 분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문학이 사고와 정서의 결과물이라 한다면 이는 사고와 정서의 교용의 결과가 기호화된 것이므로 직유, 은유, 상징과 같은 문학적 현상도 사고와 정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론화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이론화가 가능하다면 은유나 상징, 반어 같은 문학적 현상들은 기법이나 수사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사고와 정서의 직접적 결과물임을 보임으로서 작품의 온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와 정서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사고와 정서가 어떻게 텍스트로 기호화되는지, 그에 따른 기호화의 특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작가의 창조활동이 사고와 정서를 기호로 상징화하는 과정이라면, 독자의 재창조 활동은 상징화된 기호를 통해 사고와 정서를 재현하는 과정이다. 이때 창조활동과 재창조 활동은 모두 사고와 정서의 처리과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와 정서는 모두 과정적이며 일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사고와 정서의 교용관계를 구조적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와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인지 언어학은 기호로 상징화되는 언어과정에 일정한 구조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인간의 언어를 구조적 과정으로 본다. 그 결과 인지언어학은 사고의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개념이나 의미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 이 논의에서는 이 방법을 원용하여 사고와 정서를 다루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의 방법을 원용하여 정서를 다룰 수 있는 이유는 기호로 상징화되는 언어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문학은 사고의 처리 과정만이 아니

라 정서의 처리과정도 전제된다. 따라서 기호화의 과정에는 정서의 구조적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서도 언어로 대표되는 사고의 시스템과 과정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언어학의 방법을 원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와 정서가 각각 구조적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자극-반응의 과정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의 원리 하에 놓여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에 반응의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충돌하는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사고와 정서는 기호 작용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거나 인간의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와 정서의 성질을 교용이라 정의하고 이 논의에서는 사고와 정서의 구조적 과정이 기호로 통합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교용의 양상과 그에 따른 다양한 기호화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고와 정서의 교용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점을 둔다. 첫째 시인의 사고와 정서를 기호화 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는 독자가 기호화된 텍스트를 통해 언어화하고 이를 사고와 정서로 재현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본다. 둘째 이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고는 사고 단독의 의미가 아니라 정서를 함의한 사고이며, 정서도 잠재된 사고를 가진 정서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²⁾ 셋째, 이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서와 사고는 각각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과정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이 논의의 주요 논점은 사고와 정서의 교용양상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 사고와 정서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에 따른 구조와 처리과정을

2) 인지언어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는 사고라는 용어 속에는 정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사고(think)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인지언어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정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적 틀을 확보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인지언어학의 정서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고와 정서의 교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루고 또 기호화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논의는 지금까지 사고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분리적이고 개별적인 비체계적 담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담론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 논의의 궁극의 목적인 문학에서 나타나는 직유 은유 상징 병치은유 그리고 반어나 역설과 같은 비문법성이나 의미의 왜곡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3. 연구사 검토

정서와 사고의 교용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정서와 사고의 발생과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정서와 사고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머물고 있으며 더욱이 사고와 정서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분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서에 대한 연구나 견해는 크게 두가지면에서 서로 대립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정서가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K.M.B.브리지스의 견해에 의하면 정서는 초기 미분화된 감정이 상태로 존재하다가 인간의 성장과 더불어 분화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출생 후 3개월이 되면 쾌·불쾌·흥분의 정서로 분화되고 5개월이 지나면 분노, 혐오, 공포가, 만 5세가 지나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대부분을 가지게 된다.

이와 달리 프로이트는 어릴 때의 가정환경이 인간의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E.크레치머는 어릴 때의 정서가 그대로 어른의 정서로 발달한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는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릴 때 정서적 경험은 대부분 무의미해지거나 잊혀지지만 신경증의 소질이 있는 사람은 유아의 체험이나 태도를 보존한

다고 말한다. 플로치크(Plutchik)는 진화론에 기반을 둔 정서 이론 즉 정서의 심리학적 이론을 제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서의 개념은 진화의 모든 수준들에 적용될 수 있고 인간과 동물들에 다 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정서는 환경에 의해서 제기되는 주요한 생존문제들에 유기체가 대처하는 것을 돕는 적응적 역할을 수행한다³⁾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은 감정이나 정서가 원천적으로 인간에게 소여된 형태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과 인간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이라는 진화론적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정서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지, 왜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감정이나 정서가 어른이 갖는 모든 감정이나 정서와 동일하다고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진화론적 관점도 문제를 지니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드러나는 감정이나 정서를 진화의 결과로 설명할 뿐 왜 하나의 정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서를 구조적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고는 의미의 현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현현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나는 세계나 대상에 대한 의미를 머리 속에서 현현하는 과정으로 인식론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면 다른 하나는 머리에 떠오른 의미를 기호화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다. 전자는 사유대상과 사유 내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유작용으로서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언어의 기호화 과정으로 인지언어학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론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사고는 개념의 진위 여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⁴⁾ 그러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고는 인지언어학에서 다루어지는 사고라 할 수 있다.

3) 권석만의, 『심리학 개론』 (박영사, 1996), p. 256.

4) 제이해센, 이강조역, 『인식론』 (서광사, 1994), p. 15.

그러나 인지언어학에서 사고(think)는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사용을 회피하는 용어로 전락했다. 이는 사고라는 용어의 문제이기 보다는 정서를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과정에는 정서가 끊임없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 필자도 사고과정에는 정서가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은 사고 과정에 정서가 개입하는 것은 사고와 정서의 교용작용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 교용의 결과로서 정서가 이미 개입된 것은 사고로 교용의 전단계에 정서를 배제한 처리절차로서의 의미의 현 과정은 사고과정으로 구분한다.

II. 정서와 사고의 운동

사고와 정서의 지향성과 운동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정서를 개별화된 반응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자극을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만 인간은 외부자극을 개념적 의미나 정서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자체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소여된 조건이며 동시에 조금의 편차가 있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능력을 통해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의 결과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어떤 외부적 환경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지 이를 능력 자체가 소여되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열대 지방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 한국의 봄이나 가을에서 느끼는 추위의 정도와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 느끼는

추위의 정도가 다르고 성장과정에서 영어를 습득했다고 해서 한국어를 습득한 사람이 갖는 개별문법이 다르다고 해서 자극 반응의 능력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정서의 지향성과 크기

인간은 기쁜 감정이나 슬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동정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특정감정이나 현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이는 인간이 정서를 지니고 있고 또한 내재적 원리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학으로 드러나는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의 특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명은 미흡한 감이 많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 정서나 정서의 과정은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소여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은 내부적·외부적인 특정한 자극에 대한 정서를 드러낼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서는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이 능력이 작용하도록 하는 외부적 자극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심리 상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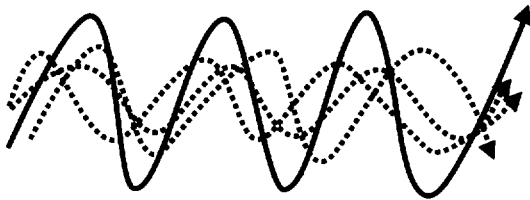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사물이 단일한 자극으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외부사물은 대부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오감각을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꽃을 보더라도 이 꽃은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자극만이 아니라 내밀하게 청각과 미각의 자극으로도 기능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오감각으로 수용된 자극은 소여된 능력과 다양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식적으로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⁵⁾

5) 정서를 자극과 반응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자극 반응의 과정은 외부 사물이 갖는 파동과 인간의 갖는 파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섭현상을 의미함으로 정서를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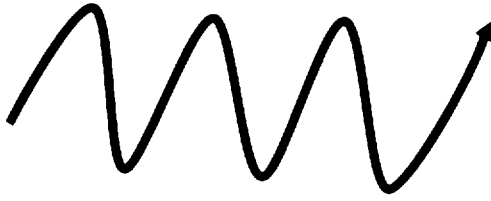


이 그림은 다양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음식을 놓고 볼 때에도 반응 과정이 동시적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음식이 시간적으로는 좋다고 하더라도 미각과 후각 또는 사고는 각기 다른 반응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과정적으로 보면 정서는 동시 다발적이다. 정서는 인간의 모든 감각처리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서가 주의되거나 주목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한 현재적 조건이나 사고에 따라 특정한 정서만이 강화 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그림은 다양한 감정의 상태에서 특정 감정이 주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특정 감정을 주목하게 되면 다른 감정들은 잠재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기체가 특정한 정서상태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이를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



위 그림은 다양한 감정의 파동들 중에서 적합자극에 의한 정서만이 남고 나머지는 잠재되어 버린 현상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나머지 자극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나머지 자극들도 강도가 강해지면 잠재되어 있다가도 적합자극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은 내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반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방법을 거치거나 언어적 방법을 통해 현현되어야 한다.

비언어적 방법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라면 언어적 방법은 기호를 매개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문학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극이 주어지면 소여된 처리 능력을 거쳐 반응으로 드러난다. 그렇다고 모든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자극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지향성과 크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향성은 물리적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호불호의 심리적 태도이며 크기는 대상에 대한 정서의 강도라고 할 수 있다.⁶⁾

정서의 방향과 크기는 문학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한적이다. 하나는 소통을 완성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기호를 매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6) 지향성과 크기는 자극→반응의 과정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정서의 교용 과정에도 끊임없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서의 발생과정에서 작용하는 지향성과 크기는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의 심리적 태도와 그 강도를 말한다. 언어화 과정에 작용하는 지향성과 크기는 사고와 정서사이의 교용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호가 사고를 지향 하는가 정서를 지향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송문석, 『시 텍스트의 창작과 수용방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참조

소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신자는 수신자가 지니고 있는 체계성을 그대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수신자가 발신자가 사용하는 체계성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동일한 규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발신자나 수신자가 소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방향은 사회적이며 자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감정의 상태에서 특정한 감정이 유기체를 지배하는 정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정들 자체가 운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유기체가 특정한 정서상태에 놓일 수 있음은 다양한 감정들이 서로 유기체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과 동시에 서로 다른 방식을 유지하는 사고와 정서가 유기체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즉 관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나 정서가 다른 한 부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조정 통제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유기체가 지속적으로 특정 감정상태에 완전히 빠지는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와 정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유기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적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과정 즉 대뇌처리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체계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고의 지향성과 크기

인간의 사고에 관한 문제는 많은 사상가들에 의하여 계속 제기되었지만 그 본격적인 탐구는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탐구의 기저에는 '언어에는 뜻이 있다'라는 명제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행위는 필연적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명제는 실재는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플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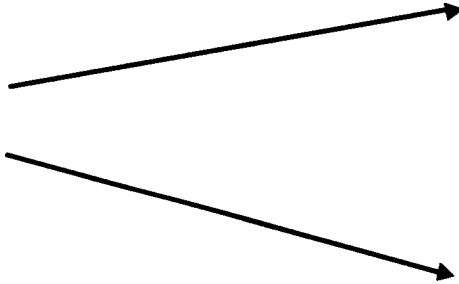
적 이데아나 역사주의적 실재론 또는 실존주의적 실재관에 닿아 있다.

그러나 인지 과학의 발달은 언어와 사고는 서로 독립적임이 밝힘으로써 이 명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만들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와 외화되어 나타나는 기호를 분리하여 기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언어를 다루면서 사고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인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소여된 언어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고가 이러한 언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함께 기호, 그리고 기호와 관련된 상징화된 또는 연결된 지식이 필요하다.

언어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소여된 언어는 내재 문법의 개념으로서 현대 언어학의 중심적인 이론이다.⁷⁾ 이 능력은 언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단어들을 결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떤 형식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식이고 어떤 형식은 용납되지 않는지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한 언어가 허용하는 모든 형식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형식을 포함하며 또한 더 복잡한 형식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재문법을 바탕으로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호를 머리 속에 저장시켜야 한다. 기호를 머리 속에 저장시킨다고 해서 음성기호나 문자기호만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기호와 관련된 대상이나 개념도 동시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호는 기표 영상 개념이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기호작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내재문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세계에 대한 지식의 양에 따라 지향성과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보다 어른이, 저학력보다 고학력이 사고나 사고과정에서 더 우월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는 배경지식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7) 레이첼켄도프 지음 이정민·김정란 옮김, 『마음의 구조』 (인간사랑, 2000), p. 41.



위의 그림은 사고의 진행방향을 나타내 준다. 그림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배경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기호화의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의 양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배경지식은 하루 아침에 그 양이 확대되는 경우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인의 사고가 문학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인의 텍스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시인의 갖고 있는 배경지식의 양에 따라 어휘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Ⅲ. 정서와 사고의 교용 양상

기호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학에서 정서와 사고의 관계는 매우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호화의 과정에서 정서나 사고가 이를 현현하기 위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은 정서와 사고의 지향성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작가-텍스트의 과정은 <정보>→<음운구조>→<어휘구조>→<통사구조>의 사고과정과 <자극>→<음운구조>→<어휘구조>→<통사구조>의 정서과정인 <텍스트>의 음운, 어휘, 통사의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 결합하여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충돌하면서 기호의 요소인 기표 개념 영

상을 지배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시인의 역동적인 사고와 정서가 현실적 존재물인 비역동적인 기호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이다.⁸⁾ 이 변환에는 사고와 정서가 텍스트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強度)와 지향성에 따라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고의 힘이 강화될수록 사전적 체계의 시가 드러나고 정서가 강화될수록 일반문법이 파괴된 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서와 사고는 지향성과 크기에 따라 다양한 교용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첫째 정서와 사고의 지향성이 동일하나 사고가 정서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호의 의미는 사전적 체계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미가 심하게 왜곡되거나 본관념이 잠재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기표-개념-영상의 관계가 사전적이고 사회적인 소통규칙에 따라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사고 중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정서는 이 사고에 복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적으로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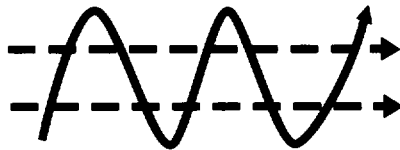
사고중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사회적 기표-개념-영상의 기호체계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호체계는 기표에 따른 기의인 개념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향성이 동일한 가운데 사고가 강하게 되면 의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 그렇다고 모두 의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표-개념-영상으로 묶여진 기호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향성이 동일하고 사고 중심의 시는 독자들이 손쉽게 텍스트가

8) Manfred Frank; *Textauslegung*. In: *Erkenntnis der Literatur*, hrsg.v. D. Harth u.a. S.125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정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의미와 그에 따른 감정의 새로움이나 가치를 심어 주지 못하게 되어 식상해질 위험을 지니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지향성이 동일한 가운데 정서가 강한 경우다. 정서와 사고의 지향성이 같다는 것은 사고와 정서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고와 정서의 작용이 일정한 관계망을 유지하며, 서로 화합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유지하더라도 사고와 정서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⁹⁾ 왜냐하면 사고나 정서가 모두 운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갈등은 대상에 대한 지향성과는 달리 사전적 기의와 시적 기의 사이에 벌어지는 것으로 사고와 정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경우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일반적 문법체계를 벗어나거나 크게 파괴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를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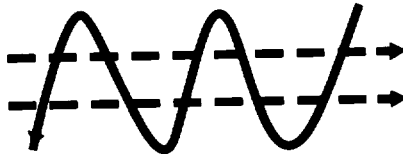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표-개념-영상>의 체계는 사고 중심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고가 강한 경우에는 <기표-개념-영상>의 체계가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정서가 강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발신자에 의해 부여되는 개념과 영상은 정서에 의해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기표-개념-영상>의 관계는 파괴되어 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기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별언어의 전반적인 특징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서자체가 지향성이 없다고

9) 사고와 정서가 하나의 의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고와 정서는 화합적이지만 역동적인 사고와 정서의 강약에 따라 기표의 지배권을 사고가 갖느냐 정서가 갖느냐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고와 정서는 갈등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사고와 정서의 교용(交融, Interfusion)양상이 내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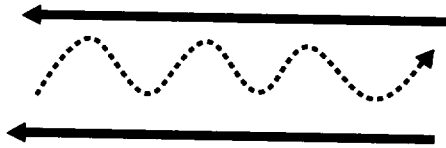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정서를 비체계적이고 단절적으로 보는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 중심의 기호체계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신선함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난해한 텍스트로 인식되게 되어 독서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세 번째 경우는 지향성이 다르고 정서가 강한 경우이다. 정서와 사고가 서로 다른 지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긍정/부정, 지향/역지향, 찬양/조롱, 거부/수용의 대립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정서의 방향을 유지하고 싶은 개인적 반응과 사고의 방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념이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향성이 다른 가운데 정서가 강하고 사고가 약해지면 갈등의 양상은 동일하지만 냉소적이며 비관적인 반어나 풍자, 아이러니의 정서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경우도 텍스트의 기호체계는 정서의 강화로 인해 사전적인 <기표-개념-영상>의 관계를 벗어나 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정서의 흐름은 의미체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된 사고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역으로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 경우는 지향성이 다르고 사고가 강한 경우이다. 사고가 강하다는 것은 텍스트에 드러난 기호체계가 문법성을 일탈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의 체계는 이러한 사고와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역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일반적인 문법을 파괴하지 않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텍스트는 두 가지 의미 체계로 읽혀지게 된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사고체계를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로 수용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정반대 의미로 수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V. 교용에 따른 기호화의 특징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은 사고와 정서의 지향성이 동일하고 사고가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표-영상-개념>의 관계는 사전적이고 사회적 용례의 범주에 놓이게 되므로 성장과정에 사회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소통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와 정서의 지향성이 다르거나 정서가 사고보다 강하게 작용하면 하나의 기호에 작용하는 기의는 사전적 체계와는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향성이 다르거나 정서가 강하다는 것은 사전적 체계의 <기표-개념-영상>의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와 정서의 교용에 따른 기호체계의 파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로 직유, 은유, 상징 그리고 반어나 역설과 같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비문법적 현상들을 들 수 있다.

직유의 경우는 사고와 정서의 교용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소통과정은 사고 전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용 양상을 잘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직유는 사고의 계열과 정서의 계열의 모

두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상적인 사고 중심의 텍스트에서 정서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사고의 폭을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보면

너의 눈이 별 같다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표현은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다. 물론 '눈'이나 '초롱초롱'이라는 말에 정서가 환기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정서는 사회화된 사고와 관련된 정서다. 이 정서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사고 속에서 공인되어 자동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화된다는 것은 특별히 환기할 필요 없이 처리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언어 수행자의 정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정서 계열의 기호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어 직유가 나타나게 된다. 위 예문에서 직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눈과 관련된 자신의 정서를 별로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정서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눈의 특성으로 별이라는 언어를 동원한 것은 별이 갖는 '빛난다'는 정보가 눈의 특성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너의 눈이 별 같다' 경우는 정서가 사고의 폭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너무 자주 사용해서 시적 표현으로 인정할 수도 없을 만큼 자동화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직유가 처음으로 쓰이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눈을 별로 인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발화되고 수용되는 상황에서 보면 독자는 이러한 시적 표현 앞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서의 힘의 작용하여 눈을 별이라고 보았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용례로 허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 통제해 주는 조건도 있다. 그 기능이 바로 계사이다. '~같다', '~양', '~처럼' 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말들이다. 이는 언어의 관어적 기능과 관련된 표현이다.

따라서 '눈'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사고의 범위에서 작용하고 반대로 '별'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적 의미와 정서의 범위에서 작용한다. 이 경우 계사는 하나의 통사처리를 용의하게 해주는 장치로서 본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회적 의미작용과 개인적 반응인 정서작용을 연결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처럼 계사가 쓰인다는 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고 작용인 의미와 개인적 반응인 정서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사전적 체계와 시적 체계의 연결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이 드러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유로 불리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법상 은유라 불리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내 마음은 호수요(김동명의 「내 마음」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에서)

여기서 '내 마음'이나 '나'를 사전적 체계의 정보라고 한다면 호수나 나룻배는 시적 체계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전적 정보와 시적 정보 사이의 연결망은 '은'/'는'이다. 이 '은'/'는'은 '~같이', '~처럼'에 비해 정서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연결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같이', '~처럼'은 사전적 정보작용이 시적 정보작용과 유사하다는 조심스런 연결이라면 '은'/'는'은 단정적인 연결이라는 차이를 지닐 뿐이다.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사물이나 관념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이며 사전적 체계의 원리이다. 그러나 다른 것이 같다는 것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정서의 문제이다. 따라서 단정적일수록 정서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관계에서 직유와 은유가 동시에 사용되면 정서는 직유보다는 은유에서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서가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수량화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심리현상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개별화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독자의 지식이나 사고의 폭에 영향을 받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작용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시에서 보면 반드시 사고 작용이 먼저 나타난 후에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고 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정서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은 정서와 사고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직유나 은유에 비해 정서가 더 강화되게 되면 사고와 정서의 관계를 나타내주던 계사만이 아니라 사고가 잠재되고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만 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김수영의 <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 김수영의 <풀>에서

위 작품은 문장의 호응이나 문법규칙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술부이며 다른 하나는 비서술부이다. 서술부에 해당하는 것은 눕는다, 나부끼다, 울었다, 일어난다, 웃는다 등이다. 이러한 서술부는 주체나 비서술부와 의 호응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 호응관계의 파괴나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등이 나타나는 것은 정서와 사고의 교체에 따른 것이다.

서술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진술이다. 이 인간의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부와 풀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비서술부의 파괴적인 결합은 사고의 계열을 따라 진술되다가 정서의 계열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사고의 계열은 '풀이 쓰러져 있다'에서 출발하여 풀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반면 정서의 계열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이를 극복하는 상황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쉽게 말한다면 작가는 들판에 자라난 풀들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광경에서 이 땅의 무수한 민중

의 모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풀에 대한 서술은 사고의 계열이 나타난 것이고 민중의 상태에 대한 진술은 정서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계사나 은유처럼 사고와 정서의 결합망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로 보이는 것 역시 결합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교체도 일종의 결합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고 작용으로서의 의미와 자극으로서의 정서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결합된 형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와 사고의 교용의 과정을 풀이라는 시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수많은 사람들이 눕는다.→②풀같은 사람들이 눕는다.→③풀은 사람. 그리고 눕는다.→④풀이 눕는다.

여기서 ①은 사고 중심의 일상적 언어라고 한다면 ②는 정서가 강화되기 시작하여 풀과 사람을 계사로 연결한 직유이다.③은 ②보다 더 정서가 강화된 표현으로 은유이고 ④는 정서가 더욱 강화되어 사고계열의 어휘가 잠재되어 버린 어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사고의 계열의 잠재되고 정서의 계열인 풀이 드러났다고 해서 문장 전체가 정서의 계열로 바뀐 것은 아니다. '눕는다. 운다' 등은 사고의 계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가 더욱 강해지면 문장 전체가 사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정서의 계열을 따르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는 정서가 사고의 폭을 강하게 뛰어넘어 텍스트의 전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병치 은유의 양상이다. 이는 정서 정보가 일정한 방식으로 텍스트화되어 기호화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를 보는 독자는 사고중심의 일반문법의 입장에서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서의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관찰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프레드 A.울프는 관찰자가 생각하는 것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관찰자의 사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물질세계의 외형이 신비하게 보이는 것은 관찰자 자신이 질서 정연한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¹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관찰자인 독자가 정서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서의 플롯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가 정서정보를 보고 있으면서도 단절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독자 자신의 정서의 계열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독자가 정서의 계열이 아닌 사고의 계열에서 있다는 것이며 사고의 계열 즉 일반문법체계에서 정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보는 현상적으로 단절적이고 플롯이 없는 형태로 보이게 된다. 이는 김춘수 「처용단장 제1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벽이 걸어오고 있었다.
 늙은 해나무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밤에 눈을 뜨고 보면
 호주 선교사네 집
 회랑의 벽에 걸린 청동시계가
 겨울도 다 갔는데
 검고 긴 망토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 김춘수 「처용단장 제1부 3」에서

이 작품은 사고의 계열과 정서의 계열의 연결망을 거의 상실한 작품이다. 사고의 계열과 정서의 계열의 연결망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산의 과정에서 사고의 작용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결망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정서의 작용으로 통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합은 사고와 정서의 두 가지 작용 중 하나의 지배력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다른 하나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은 아니다.

위 작품에서 보면 어휘 간 계열성이 심하게 파괴되어 있을 뿐만 아니

10) 프레드A.울프, 박병철·공국진 역,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고려원미디어, 1992), p235.

라 문장과 문장의 관계도 일상적 문법 규칙이 심하게 파괴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는 정보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는 문장이나 정보단위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보단위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병치은유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병치은유의 양상은 정보단위 간의 위계질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지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드러난 일반적 문법규칙으로는 이 위계질서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치은유는 사고의 계열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서의 계열에 따라 진술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병치가 정서의 계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병치는 사고의 계열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고의 계열에 존재하는 병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계열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시에서 나타나는 병치는 상황이 다르다. 정서가 사고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의를 확인할 수 없는 병치은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치은유에 위계질서를 부여하여 기의를 산출하는 것은 일반문법을 벗어나 시 문법으로 독자가 이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 문법은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가 사전적 체계와 백과사전적 체계만이 아니라 시적 체계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와 정서의 교용에 따른 기호 현상의 또다른 양상은 사고와 정서의 강도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지향성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사고와 정서의 지향성이 달라지면 사고는 일상적이고 사전적인 기표-개념-영상의 체계에서 작용하지만 정서는 사고의 체계와는 정반대의 기표-개념-영상의 체계를 갖도록 한다. 이는 다음의 '신명'이라는 시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신경림의 「농무」에서)

이 작품은 농악놀이의 흥겨움을 소재로 소외되는 농민들이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농악놀이의 즐거움을 드러낸 시일뿐이다. 그렇지만 정서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명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신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향성이 다르다고 보면 신명의 의미는 '분노' 또는 '엄청난 슬픔'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사고와 정서의 지향성이 달라지면 기호는 사전적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진달래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서

이 작품은 일반문법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에서 진달래꽃을 뿌리는 행위나 의미가 한국어의 일반적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꽃을 뿌리면서 보낸다는 산화공덕의 의미를 사회적 용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반문법규칙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의미로 읽혀지는 것은 사고와 정서의 지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사고와 정서가 대상에 대한 대립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이' '죽어도' 등의 어휘와 극존칭의 서술어의 사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사고의 계열에서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의 진술은 '고이 보낼 수 없다'는 강력한 정서의 반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향성이 달라지는 이유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 상대는 보내야 한다는 사고와는 달리 보내고 싶지 않다는 나의 정서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향성의 차이에 의한 개념도 시적 개념체계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과사전적 개념이나 사전적 개념에는 반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V. 결론

기존의 논의들은 사고와 정서가 문학에서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정서가 존재한다는 현상을 기반으로 그 근원을 성격적인 에너지 또는 일반 에너지로 규정하고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을 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이론적 모델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정서에 대한 수많은 선입견들을 존재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서는 비합리적인 것이어서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거나 인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다. 그렇지만 이는 사고나 정서를 단선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마치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를 비논리적이라고 평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사고나 정서는 비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비논리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사고와 정서는 문학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도구들로서 정서는 삶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식과 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이러한 사고와 정서의 내밀한 관련을 교용으로 보고 교용의 양상과 그에 따른 기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와 정서는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소영된 능력이며 동시에 자극-반응의 결과로서 개별문법의 과정을 거쳐 일상적 언어로 들어나는 사고과정과 자극 반응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기호화의 과정에서 개별문법을 파괴하는 정서과정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사고와 정서의 교용양상은 지향성과 크기에 따라 지향성이 동일한 가운데 정서가 강한 경우, 지향성이 동일한 가운데 사고가 강한 경

우, 지향성이 다르고 정서가 강한 경우, 지향성이 다르고 사고가 강한 경우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 사고와 정서의 교용에 따른 기호화의 특징은 정서에 비해 사고가 강할수록 일상적인 언어로 떨어지고 사고에 비해 정서가 강할수록 직유→은유→상징→병치은유로 나아가고, 지향성이 다를 경우 사고의 의미를 반대로 역전시키는 반어나 역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공창식 외(1997). 『알기쉬운 물리학 강의』, 청범출판사.
 구인환 외(1998). 『문학 교수 학습 방법론』, 삼지원.
 권혁준(1997).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이상(1994). 『시교육론』, 육일 문화사.
 김창원(1998).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춘수(1995). 『김춘수 문학앨범』, 웅진출판.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레이제켄도프, 이정민·김정란 역(2000). 『마음의 구조』, 인간사랑.
 루디 젤러, 이기숙 역(2000). 『기호와 해석』, 인간사랑.
 박상희(1999). 『생체 신호 처리 및 응용』, 에드텍.
 송효섭(1997). 『문화기호학』, 민음사.
 심재기 외(1985). 『의미론 서설』, 집문당.
 움베르토에코, 김광현 역(1995). 『해석의 한계』, 열린책들.
 윤석산(1996). 『시학』, 새미.
 윤여탁(1999). 『시교육론: 시의 소통구조와 감상』, 태학사.
 윤여탁(1999). 『시교육론Ⅱ』,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수련(2001). 『한국어와 인지』, 박이정.
 이승훈(1983). 『문학과 시간』, 문예비평신서.

- 이준희(1994). 「은유표현의 해석 장치」, <한양어문 연구 제10집>.
장도준 (1995). 『현대시론』, 태학사
정대현(1997). 『맞춤의 철학- 진리와 의미를 위하여』, 철학과 현실사,
제임스 그리블, 나병철역(1987),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조연주 외((1998). 『구성주의 교육』, 학지사.
차호일(1999). 『시연구와 시교육』, 역락.
최미숙(2000). 『한국 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과 시 해석』, 소명출판사.
한스마이츨, 김준오 역(1983). 『문학과 시간』, 문예비평신서.
Roman Jakobson, 신문수 역(1989).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 논저

- 권오현(1992). 「문학소통이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김윤정, 김수정, 정재범, & 남기춘 (1999). 「한국어 구문 중의성 해결과정: 정상인과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구문정보처리 특성」,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김이상(1991). 「시교육 이론과 방법론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남기춘, 김태훈, 문성실, 서창원 (1998). 「한국어 구문 중의성 해결과정: 용례기반 즉시적 해결」, <언어정보, 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소.
남기춘 · 김현택 이홍재 · 김동휘, (2000). 「ERP에 나타난 정상인과 실어증 환자의 어휘, 통사, 의미 정보처리의 단원성」 <고려대학교 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음집>.
이동훈, 이홍재, 이은정, 문찬홍, 유재욱, 나동규, 남기춘 (2000).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에 나타난 한글과 한자 단어 재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이홍재, 남기춘, 김현택(1996). 「한글 및 한자 단어 재인의 차이 : ERP를 중심으로」, <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발표 논문집>.